

國語의 人稱代名詞

李 基 文*

1

本稿는 國語의 人稱代名詞에 대해서 筆者가 평소에 느껴온 것을 간단히 적어 본 것이다. 國語의 人稱代名詞에 관해서는 李熙昇(1931)이 있는 뒤로 現代語 및 中世語의 文法에 관한 여러 論著에서 言及된 것들이 있어 새삼스럽게 보태어 말할 것이 별로 없다. 다만 筆者는 여러해 전에 現代國語의 三人稱代名詞 問題에 대하여 國語學者로서의 所見을 말한 일이 있어, 全光鏞先生의 回甲을 紀念하는 이 論文集에 우리 나라 現代文學과도 한가닥 관련이 있는 이 문제를 다시 논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本稿는 國語의 三人稱代名詞에 대해서 주로 論하려 하지만, 이 기회에 一人稱과 二人稱에 관해서도 약간의 拙見을 덧붙이려 한다. 本稿의 관심은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는 여러 사실들에 걸쳐 있지만 體系的인 歷史的 研究는 아니다. 그리고 現代語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言語改造에 관한 논의도 포함된다. 이처럼 本稿의 關心은 너무 산만하여 하나의 雜記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2

個別的인 問題들을 논하기 전에 人稱代名詞에 관한 약간의 理論을 제시하려고 한다. 筆者의 創見이 아니요 남들의 見解를 소개하는 것이어서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論述의 順序上 필요한 듯이 느껴진다.

人稱代名詞에서 세 人稱(一人稱, 二人稱, 三人稱)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 言語의 記述에서 하나의 通例가 되어 왔다. 이것은 모든 言語에 普遍的인 사

* 人文大 教授(國語學專攻)

실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人稱은 그 性格에 현격한 差異가 있다.

寡聞의 탓인지 모르지만, 人稱 範疇의 基本性格에 대해서 예리한 考察을 행한 학자로 Benveniste를 들 수 있다. 그는 動詞에 있어서의 人稱 問題에 관한 것과 代名詞의 本質에 관한 두 論文(1946, 1956)¹⁾에서 三人稱이 一人稱, 二人稱과 根本적으로 다름을 밝혔던 것이다. 그는 人稱의 概念은 je/tu에 단 特有한 것이요 il에는 없는 것임을 論證하려 했던 것이다.

Benveniste(1946)에서 우리의 각별한 注目을 끄는 점은, 古代 회랍이나 인도의 文法家들이 세 人稱을 인정한 것은 動詞의 現在活用에서 -mi, -si, -ti의 세 語尾를 가지런히 가지고 있음에 끌려서 된 것이며 아랍 文法家들은, 이와는 달리, 一人稱을 ‘말을 하는 사람’, 二人稱을 ‘말을 하는 상대자’라 하고 三人稱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 아랍 文法家들은 一·二人稱과 三人稱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一·二人稱만이 진정한 人稱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는 動詞의 人稱 語尾를 가진 言語들 중에서 토이기語에는 一·二人稱의 語尾만 있고 三人稱의 그것이 없음을 예로 들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특히 韓國語가 중요한 논의의 對象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흥미를 끈다. 그는 人稱의 區別이 없는 動詞가 있을 수 있는가, 人稱範疇가 과연 動詞에 必須的인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Ramstedt(1939)가 한국어 동사는 人稱 表示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記述에 주목하여 한국어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²⁾ 그 결과 그는 한국어에 있어서도 여러 語尾들의 用法에 나타나는 制限이나 대명사의 사용이 원칙적으로는 구별되고 있지 않은 動詞의 人稱을 밝히는데 공헌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한국어 외에도 몇 언어의 경우를 들었지만, 그가 한국어에 대한 매우 불완전한 검토를 토대로 人稱範疇가 動詞에 基本的이고 必須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데는 상당한 無理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Benveniste(1956)는 一·二人稱과 三人稱의 根本的 差異를 밝히려는 目的

1) 이 두 논문은 Benveniste(1966)에 수록되어 있다. 本稿의 引用은 이 책에 의 한 것이다.

2) 이 검토에 있어서 그는 당시 파리에 있는 Li-Long-Tsue라는 이름의 한국인 언어학자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으로 쓰여진 논문이다. 여기서 그는 三人稱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의 非人稱(non-personne)임을 여러모로 증명하려고 하였다. je와 tu는 談話의 現場과 밀착되어 indicateurs로 사용된다. 실제로 이들은, 名詞의 경우와는 달리, 對象과의 關係에서는 定義될 수 없고 'l'individu qui énonce la présente instance de discours contenant l'instance linguistique je', 'l'individu allocuté dans la présente instance de discours contenant l'instance linguistique tu'로 定義될 수 있다. 그러나 三人稱이라고 하는 것은 'substitut abrégé'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보는 것이다. 이 논문의 끝부분에서 그는 印歐語 動詞의 現在活用이나 現代諸語의 人代名詞들이 마치 세 人稱 體系를 合理化해 주는 듯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形態的인 것이요 소위 '三人稱'이란 人稱의 概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著書들 중에서 人稱範疇를 논한 것으로는 Lyons(1968: 275-281)를 들 수 있다. 그도 무엇보다도 먼저 一·二人稱과 三人稱의 差異에 관해서 논하고 있으나 三人稱을 非人稱으로 규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 그대신 그는 人稱範疇는 一次的으로 一人稱(+ego)과 非一人稱(-ego)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했으나 타당성이 적어 보인다. 한편 動詞와 人稱範疇의 문제 대해서도 Benveniste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表面構造에 있어서는 라틴語와 英語에 차이가 있으나 深層構造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즉 深層構造에서는 추상적인 代名詞的 要素를 설정해야 하며 이것이 라틴語의 表面構造에서는 動詞에 人稱 資質이 첨가된 뒤 없어지고 英語의 表面構造에서는 代名詞로 나타난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人稱은 다만 몇몇 言語에서 動詞의 二次的인 範疇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見解가 국어의 경우에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소개하고 싶은 것이 더 있으나 本稿와 직접 關係가 없는 것들이므로 여기서는 덮어두기로 한다.

3

國語의 一人稱代名詞는 '나'로 대표된다. 中世語에 있어서 일인칭은 '나'

하나 뿐이었다. 옷사람에게 말할 때에도 ‘나’가 사용된 많은 예가 중세 문헌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중세어의 ‘나’는 현대어의 ‘나’와는 상당히 다른 意味 內容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의 ‘나’가 주는 自尊의 느낌 같은 것이 중세어의 ‘나’에는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대어의 ‘나’는 謙稱의 ‘저’와 대립되고 있지만 중세어에는 이런 대립이 없었던 것이다.

이 謙稱의 ‘저’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적어도 이것이 중세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종래 이 ‘저’의 起源에 대해서는 “본래 세째 가리킴의 ‘저’(彼)”에서 왔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최 현배 1937) 그렇다면 ‘저’가 中世語의 ‘더’에 溯及하는 셈인데, 音韻論의 觀點에서는 일인칭의 ‘저’가 이 ‘더’에서 왔다고 보아도 무방하나 形態論의 觀點에서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일인칭 ‘저’의 複數形은 특이한 接尾辭 ‘-회’로 이루어지는데, 指示 내지 三人稱의 ‘저’는 複數形이 일반적인 接尾辭 ‘-들’로 이루어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 이에 대하여 現代語에 再歸代名詞의 ‘저’가 있는데 이의 複數形은 ‘-회’로 이루어지는 점이 一人稱의 ‘저’와 일치한다.⁴⁾ 따라서 形態論의 觀點에서는 一人稱의 ‘저’는 再歸의 ‘저’에서 왔다고 보는 것이 온당한 듯이 여겨진다. 한편 意味의 觀點에서 보아도 겸사의 一人稱은 指示(내지 三人稱)에서 보다 再歸代名詞에서 왔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겸사의 일인칭 대명사 ‘저’의 존재는 국어에 매우 특이한 것이다. 이것이 국어의 敬語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국어에서 話者가 자기를 가리킬 때 ‘寡人, 本官’이나 ‘小人, 賤妾’ 등을 쓰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특히 아랫사람이 옷사람에게 말하는 경우에 많은데, 막상 이들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없었던 것이다. ‘저’의 발달은 결국 이런 體系上의 결함을 메운 것이었다. 널리 찾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변의 언어에, 특히 敬語法이 발달된 日本語에도 이 謙稱의 ‘저’에 해당되는 말이 발달되지 않았

3) 중세어 문헌에서 ‘더’의 복수형은 아직 찾지 못하였다. 劉昌惇(1971: 270)은 중세어에 ‘더회’란 복수형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劉昌惇(1964)에도 이 복수형은 등목되어 있지 않다.

4) 이 복수형은 중세어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저회 닐오티(월인서보 2: 46)

음은 주목할 만하다.

일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말할 때 그 複數形이 특이하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는 ‘나’와는 語源的으로 관련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세계의 여러 언어에서 발견된다. ‘나’와 ‘우리’의 관계는 ‘아이’와 ‘아이들’과 같은 일반 명사의 복수의 관계와는 다른 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Benveniste 1966:233, Lyons 1968:277) 다시 말하면 ‘우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 아닌 사람의 接合이다. 이 다른 사람 속에는 聽者도 포함되는 수가 있다. 실제로 일인칭 복수형에서 청자를 포함하는 것(inclusive)과 포함하지 않는 것(exclusive)의 兩形을 가진 언어가 적지 않다. 가까운 예로 滿洲語와 蒙古語를 들 수 있다. 만주어의 일인칭 복수형에는 muse와 be가 있어 각각 incl.와 excl.의 용법을 가지는 것으로 記述되어 왔다. 만주어의 錫伯(Sibe) 方言에는 아직도 위의 兩形에 對應되는 boo와 mesə가 있으며, 그 용법은 전통적인 incl.와 excl.의 구별을 반드시 보여주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그런 경향을 보여준다. (服部四郎, 山本謙語 1955). 蒙古文語에도 bida와 ba가 존재한다. 그러나 現代蒙古諸語에 있어서는 이들의 用法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 심한 예로 부리아트語에서는 이 구별이 아주 잊혀져 버렸다. (Pappe 1955 기타)

국어의 어느 과거 단계에 이런 구별을 가졌었을 가능성을 전혀 排除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는 그런 증거가 확인된 일이 없다. 이점 鄉歌와 吏讀에 보이는 ‘矣徒’가 주목되기도 하나 앞으로 더욱 연구해 볼 문제로 남겨 둔다.

4

聽者에 대한 敬意의 表示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나는 것으로 英語나 佛語에서 二人稱 複數形인 you나 vous를 單數로 사용하게 된 것도 그 예가 된다. 하물며 국어와 같이 敬語法이 발달한 언어에 있어서 일인칭대명사의 사용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것이다.

中世語의 일인칭 대명사에 대해서는 安秉禧(1965)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되었다. 이 논문은 중세어의 공손법 어미와 일인칭대명사를 관련지어 ‘너’는

하라체, ‘그되’는 하야씨체에 호응됨을 밝힌 것이다. 이 논문에서, 가장 높은 등분인 하쇼씨체에 호응되는 이인칭이 없음을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15세기 국어의 이인칭대명사로서 ‘너’와 ‘그되’를 들고 만 종래의 記述들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世尊이나 임금과 같은 존귀한 상대자에게는 아무런 대명사도 쓰지 않는 것이 경의의 표시였던 것이니, 하쇼씨체에 호응되는 이인칭대명사는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없는 것이다.⁵⁾ 이것은 텅빈 零(empty zero)가 아니라 꽉찬 零(full zero)이라고 할 수 있다. 言語體系의 記述에 있어 零記號(signe zero)에 대한 논의가 더러 있었지만(Jakobson 1939, Godel 1953) 국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분명히言及된 것이 있는 것 같지 않다.

中世語의 ‘그되’에 대해서 몇가지 사실을 덧붙여 둔다. 世宗代의 문헌에는 ‘그되’ 뿐이요 月印釋譜(卷 1)에 主格形 ‘그되’(1:7), 所有格形·‘그되’(1:11)이 나타난다. 그리고 杜詩諺解에 와서 ‘그되’와 함께 ‘그되’가 나타난다. 이 ‘그되, 그되’가 指示代名詞 ‘그’와 처소를 의미하는 ‘되/되’에서 왔음은 과거에도 지적된 바 있는데(유창돈 1971:267, 허용 1975:224), 상당한 蓋然性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비록 문헌에는 ‘그되’가 나중이지만 도리어 古形이요 ‘그되’는 이로부터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되’는 起源의으로는 形式名詞 ‘되’의 處格形인데 이것이 陰性母音을 가진 단어와 결합될 때 ‘되’로 된 예는 世宗·世祖 兩代의 문헌에 결코 드물지 않다. 년되(석보상절 11:29), 먼되(월인석보 2:69). 다만 이 ‘되’의 主格形은 ‘너’인데 ‘그되’의 主格形이 일반적으로 ‘그되’인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위에 든 ‘그되’의 예가 주목된다. 아마도 主格形이 일반적으로 ‘그되’였던 단계가 15세기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⁶⁾

이런 해석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의 흥미있는 물음이 제기된다. ‘그곳에’의 의미를 가진 ‘그되’가 어떻게 해서 이인칭으로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시대명사 ‘이, 그, 너’ 중에서 ‘그’가 聽者와의 近接이라는 意味

5) 이것은 거의 그대로 현대어에도 적용된다.

6) ‘되’의 主格形 ‘너’는 去聲인데 월인석보의 ‘그되’의 ‘되’는 上聲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資質을 지니고 있어 이인칭에 선택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중세어에서 삼인칭에 ‘더’가 사용된 것과 대조될 수 있을 것이다. (後述 참고)

이 역시 과거에 지적된 바이지만, 이인칭대명사 ‘너’와 ‘그티’를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의 複數形이 보여주는 接尾辭의 차이이다. 즉 ‘너희’와 ‘그티네’에서 ‘-희’와 ‘-네’는 이들의 敬語法上的 等差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이 접미사 ‘-희’는 ‘저희’에도 사용된 것으로, 이 특이한 形態의 起源이 궁금하기는 하나, 이것이 卞稱의 뜻을 가진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하여 ‘-네’는 ‘어마님네, 夫人內, 聖人內’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尊稱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 이미 중세어에 ‘그티네’와 함께 ‘그티네’가 있었다. (두시언해 8 : 55) 16세기에 ‘-네’가 일반화되었고 尊稱의 뜻이 弱화된 것은 17세기부터의 일인 듯하다.

국어의 이인칭 대명사를 논함에 있어 현대어의 ‘자네’와 ‘당신’을 看過할 수 없다. 이들은 각각 하계체와 하오체에 호응되는 것으로 어느 면에서는 중세어의 ‘그티’의 자리를 메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네’는 중세어에 자주 쓰인 ‘자내’(自)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역시 尊稱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勞度差 | ㅎ다가 물ㅎ야 제 모미 夜叉 | ㄷ외야……도라오거늘 舍利弗도
자내 比沙門王이 ㄷ외니(석보상절 6 : 33)

이 글에서 ‘제 모미’와 ‘자내’의 대립이 뚜렷이 드러난다. 중세어에서 ‘자내’는 格形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副詞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近代에 와서 格形을 가지게 되고 이인칭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한편 ‘당신’은 중세어 문헌에 거의 보이지 않으나, 16세기 후반에는 再歸代名詞로 쓰인 듯하다.⁷⁾

7) 이 ‘-내’는 蒙古文語의 복수접미사 -nar/-ner와 그 用法에 相通하는 데가 있다. 起源의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8) 劉昌惇(1964)에 小學諺解(6 : 77)에 보이는 ‘당신’이 등록되어 있다.

5

국어에 固有한 三人稱代名詞가 있는가.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국어의 어느 단계에서도 삼인칭대명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人代名詞에 관한 現代言語學의 理論을 소개한 데서도 보았지만 三人稱이라고 하는 것은 一·二人稱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하여 삼인칭대명사가 없는 언어가 결코 드물지 않다. 이런 언어들 중에는 지시대명사를 삼인칭에 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印歐諸語에서 예를 들면, 古典라틴語에서 지시대명사(hic, iste, ille 등)가 삼인칭대명사가 사용되었음을 본다. 오늘날 로망諸語(佛語, 이태리語)의 삼인칭대명사는 실은 지시대명사에서 발달한 것이다. 英語의 he, she 등도 起源的으로 지시대명사였다. 알타이諸語에서는 토이기語를 예로 들 수 있다. 古代토이기語(突厥 碑文의 언어)에서 지시대명사 o (that)이 삼인칭대명사로 사용된 예가 발견된다.(Tekin 1968)⁹⁾ 이렇게 볼 때 국어가 본래의 삼인칭대명사를 가지지 않은 것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결코 특이한 사실이 아니다.

국어에서 古代의 경우는 자세히 모르지만, 적어도 중세에는 지시대명사를 삼인칭대명사로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중세어 문헌에 보면 ‘더’가 삼인칭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다. 李崇寧(1961: 164)이 “三人稱은 本是 固定된 것이 없지만 흔히 ‘더’로 쓰인다”고 한 것은 온당한 記述이다. 유창돈(1971: 270)이 ‘더’와 함께 ‘그’를 든 것은 잘못이었다. 여기에 인용된 ‘그’의 두 例文은 지시대명사로서 사용된 것이다.

‘그’가 삼인칭대명사로 사용된 것은 現代에 와서의 일인 듯하다. 金東仁(1929)이 ‘그’를 삼인칭대명사로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말한 이래, 이것이 널리 인정되어 왔다. 필자는 아직 이런 관점에서 문헌자료들을 자세히

9) 이에 대하여, 蒙古語에는 중세 단계까지도 삼인칭 단수의 i와 복수의 a의 辭格形들이 나타나 原始蒙古語에 *i와 *a를 再構하게 한다.(Poppe 1955) 현대 통구스諸語는 삼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있다. 에벤키語 단수 nupan, 복수 nupartin, 등, Benzing(1955)은 이 nupan이 만주어 gūwa(別人)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原始통구스語의 삼인칭 대명사의 再構는 未解決의 문제로 남아 있다.

조사해 보지 못했으나 金宇鍾(1968)은 金東仁보다도 앞서 李光洙가 그의 작품에서 ‘그’를 삼인칭대명사로 사용했으며 李光洙의 先功이 오히려 컸음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삼인칭대명사로 ‘그’를 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중세어나 현대어나 지시대명사에는 이른바 近稱 ‘이’, 中稱 ‘그’, 遠稱 ‘더’(현대 ‘저’)가 있는데 近稱이란 話者에게 가까운 것, 中稱이란 聽者에게 가까운 것, 遠稱이란 이 둘로부터 먼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體系에서 삼인칭에 轉用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더’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¹⁰⁾ 이것은 중세어에서 ‘더’가 삼인칭으로 쓰인 사실에 의해서 實證된다. 실은 현대에 와서도 李熙昇(1931)을 비롯한 몇 곳에서 삼인칭대명사로, ‘저’를 들고 있음을 본다.¹¹⁾ 그런데 어찌하여 李光洙나 金東仁이 ‘저’를 물리치고 ‘그’를 택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저’가 再歸대명사로 또 일인칭(검칭)으로 사용된 ‘저’와 同音인 사실에서 그것을 피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지시대명사 중에서 ‘저’ 다음으로 삼인칭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그’에 착안하여 다소의 不自然을 무릅쓰고¹²⁾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三人稱代名詞 ‘그’를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새로운 小說文學을 개척한 小說家들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西歐文學의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어를 비롯한 現代 西歐諸語에 삼인칭대명사가 있으므로 西歐式 小說을 쓰려고 한 그들에게는 국어에 삼인칭대명사가 없는 것이 하나의 큰 장애로 느껴졌던 것이다. 金東仁(1929)이 그의 文學 道程을 회고하면서 삼인칭대명사 ‘그’의 개발을 特記한 사실이 그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李光洙와 金東仁은 ‘그’로써 삼인칭대명사를 삼으면서 男性과 女性을 구별하지 않았었다. 玄鎮健 등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뒤의 작

10) 日本語에서 삼인칭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kare도 遠稱 指示代名詞에서 온 것이다.

11) 이것은 주목할 만한 記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言語事實이 아직은 확인되어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20세기 초엽의 문장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上述한 바와 같이, 중세어에서는 ‘그’가 이인칭의 ‘그뒤’에 사용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가들은 이 구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어의 she를 비롯한 西歐諸語의 삼인칭 여성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남성형으로 삼고 이에 대립되는 여성형을 마련하려는 試圖가 작가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다. 海外文學 創刊號(1927年 1月)의 ‘編輯 餘言’에 다음과 같은 一條가 있다. 좀 길지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여기에 인용한다.¹³⁾

우리 옛 사람 原稿에 여러분이 처음 對하는 말이 나온다. 그네(그네). 이것은 she라는 말이다. 우리는 he와 she를 ‘그’와 ‘그네’로 쓴다. 여러분 귀에 울리는 音響이 었던가. 쓰는 ‘그네’말지 ‘그네’말지 그것도 生覺해 보자. ‘그네’란 複數로 었던 ‘그루프’의 代名詞여서 좀 混同의 念慮가 잇음뿐 아니라 ‘내’보다 ‘네’는 女性다운 맛이 적은 感도 업지 안아 잇다. 語學上으로 逆說이나마한 說을 세우지는 안는다. 勿論 큰 根據 잇는 說을 세어낼 수도 업다. 그러나 왜 그런지 이 런 말이 이섯슬 것 갖고 쓰 잇는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였던 것 갔다. 가령 우리 식골서 었던 안주인을 말할 세에 婦人덜이 그 에 일홈이나 或 男便 일홈 뜻에 ‘네’字를 부쳐 말하는 일이 잇스나 그 집을 代表하는 複數로만 알게 되었든 것이다. 何如間 그럴듯한 感이 이쓰면 잇쓸싸록 잇다. 第一步로 感하는 것 쓰 第一만이 세이는 것부터 우리는 問題 걸어 본다.

世稱 海外文學派의 文人들이 삼인칭 여성형 ‘그네’ 내지 ‘그네’의 최초 提案者인지, 이들보다 앞서 어떤 다른 提案이 있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이 글에서 ‘그네’의 근거를 밝힌 점이 주목된다. 解放 전의 어떤 雜誌에서 삼인칭대명사 문제에 대한 設問을 文筆家, 學者, 教育家에게 낸 일이 있는데, ‘厥者, 厥女’, ‘늬, 녀’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런 回顧談과 함께 黃順元(1955)은 스스로 ‘그네’를 택한 이유로서 “우리 나라 말에 ‘삼돌이네’, ‘점순네’하면 대개 그 집 어머니(女性)를 가리킨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은 우리 地方(平南)에 限한 것인지는 모르나 ‘무슨 녀(女)’라고 할 때 ‘녀’라고 하지 않고 ‘네’로 통한다는 점에 着眼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글은, 한편으로는 海外文學派의 ‘그네’를 택한 생각과 통하고, 다른 편으로는 오늘날 作家들 사이에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녀’와도 생각이 통하는 데가 있음을 보여준다.

13) 이 자료를 제공해 준 金容稷教授에게 謝意를 表한다. 띄어쓰기와 부호는 고쳐 썼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文壇에서는 삼인칭 여성 대명사를 추구하는 노력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듯하다. 현재 나와 있는 ‘그네’, ‘그녀’ 등의 提案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대부분의 작가가 이들 중의 하나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國語學者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한 일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다. 필자는 주로 小說家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삼인칭대명사를 위한 노력은 特記할 만한 것으로 당연히 國語學者로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開化期 이래 國語의 改造를 위한 노력은 주로 周時經을 중심으로 한 좁은 범위의 국어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性格도 漢字語를 대신할 新語를 만드는 것이어서 상당한 物議를 일으켰음에 대하여, 이 삼인칭대명사를 위한 노력은 文壇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이요, 적어도 ‘그’에 관한 한, 이미 일반사회에 널리 퍼진 것으로 달리 類例가 없기 때문이다.

本稿의 첫머리에서도 말했듯이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오래전에 짧은 글을 쓴 일이 있다. (淑大新報, 1962) 그때나 지금이나 拙見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국어의 삼인칭대명사는 ‘그’ 하나로서 족하다고 본다. 이 ‘그’는 다소의 문제는 있다고 해도(上述) 그런대로 성공을 거두어 국어에 확고한 뿌리를 내린 것이다. 주로 文語에서 많이 쓰이지만 口語에도 점차 침투해 가고 있다.

그러나 女性形의 ‘그네’나 ‘그녀’는 사정이 다르다. 첫째, 아직도 작가들 사이에조차 통일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萬人의 共感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네’의 ‘네’는 複數接尾辭요, ‘그녀’의 ‘녀’는 漢字에서 온 것으로 造語法上 다소의 무리가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보다 근본적으로, 삼인칭대명사에서 男性形과 女性形의 구별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물음을 묻고 싶다. 우리 나라 현대문학이 이 구별을 가지고 있는 문학의 영향을 받아온 탓으로, 우리 나라 작가들은 이 구별이 없으면 불편을 느끼는 모양이지만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 도대체 일인칭이나 이인칭에 남성형과 여성형의 구별이 없는 것은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하필 삼인칭에서만 불편을 느낀다는 점을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독 삼인칭에 이 구별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할 어떤 論理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별이 없는 언어도 적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Jespersen(1924)이 그의 널리 알려진 言語進步論을 전개하는 중에 바로 대명사의 남성형과 여성형에 대해서 말한 것이 생각난다. 그는 英語에는 he, she의 구별이 있지만 匈牙利語에는 이 구별이 없음을 지적하고, 대명사에 性의 구별이 없는 것이 더 要望될 때가 있음을 英語와 라틴語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다. 英語의 의문대명사 who는 性과 數가 不定이어서 質問을 不定의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함에 대하여 라틴語의 의문대명사에는 남성형과 여성형, 또 이들의 단수와 복수가 있어 오히려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는 요컨대 삼인칭이나 의문대명사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있는 것이 더욱 발달된 언어라는 견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삼인칭대명사의 경우에 性의 구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文體論의 觀點에서 볼 때, 一長一短이 있어 優劣을 가리기 어렵다. 작가는 모름지기 자기 母語의 특징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의 많은 작가들이 삼인칭 여성형이 없음을 불편하게 생각해 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아직 母語에 대한 自覺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翻譯文學에 있어서는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歐美의 作品을 번역하는데 꼭 삼인칭 여성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번역에 있어서 부닥치는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만약 번역을 위해서 삼인칭 여성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극단으로 말하면, 그는 국어의 構造를 歐美諸語의 그것에 가깝게 고쳐야 만족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翻譯體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번역의 올바른 길이 아니다. 외국의 작품을 순수하고 아름다운 국어로 옮기는 것이 번역의 理想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삼인칭대명사에 관한 논의를 끝냄에 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통적인 국어에서 지시대명사가 삼인칭으로 轉用되었다 해도 그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었다는 사실이다. 中世語 문헌에서 삼인칭으로 사용된 ‘더’의 用例는 손꼽을 수 있을 정도다. 이것은 그 문헌들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역시 당시의 日常 談話에서도 이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현대에 와서 국어 문장에 ‘그’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주로 西歐諸語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6

國語의 人稱代名詞에 대한 전반적인 論議라면 이밖에도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筆者는 그럴만한 餘力을 갖고 있지 못하다. 특히 變形生成文法에서 말하는 代名詞化(pronominalization)를 둘러싼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本稿의 趣向이 너무 다르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本稿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몇 문제에 대해서 稿를 달리하여 논해 볼까 한다.

여기서 本稿의 論述에 드러나 있는 한가지 사실을 종합하는 것으로 本稿를 끝맺을까 한다. 그것은 國語의 人稱代名詞와 敬語法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비단 一人稱의 ‘저’, 二人稱의 ‘그되’, ‘자네’, ‘당신’과 같은 謙稱이나 尊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本稿에서 우리는 國語의 人稱代名詞의 使用이 전반적으로 큰 制約을 받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런 制約이 敬語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呼稱體에 호응되는 二人稱代名詞가 中世語에 없음이 지적된 바 있지만 現代語에서, 一例로, ‘형님’이나 ‘누님’에 대해서도 代名詞가 사용되지 못하는 사실만 보아도 국어의 人代名詞 使用이 얼마나 미묘한가를 알 수 있다.¹⁴⁾ 人稱代名詞의 檢討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敬語法이 얼마나 강력하게 국어의 文法構造를 支配하고 있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이리하여 國語는 극도로 人稱 範疇가 表面構造에 적게 나타나는 言語가 되고 말았다. 이 점이 앞으로 國語의 記述에서 적절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14) 현대어에 있어서는 聽者가 話者보다 웃사람일 때에는 사실상 대명사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장석진 (1973) 등 참고.

참 고 문 헌

- 金東仁, 1929. 韓國近代小說考.
- 金宇鍾, 1968. 韓國現代小說史.
- 安秉禧, 1965. 十五世紀 國語 恭遜法の 한 研究, 국어국문학 28.
- 劉昌惇, 1964. 李朝語辭典.
- _____, 1971. 語彙史研究.
- 李崇寧, 1961. 中世國語文法.
- 李熙昇, 1931. 人代名詞 小話, 朝鮮語文學會報 1.
- 張奭鎭, 1973. 話의 生成的 研究, 語學研究 9. 2. 別卷.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 허 응, 1975. 우리 옛말본.
- 黃順元, 1955. 그와 그네, 文學藝術, 1955年 8月.
- Benveniste, Émile, 1946. Structure de relations de personne dans le verbe. Benveniste (1966) 所收.
- _____, 1956. La nature des pronoms. Benveniste (1966) 所收.
- _____, 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 Benzing, Johannes, 1955. Die tungusischen Sprachen, Wiesbaden.
- Godel, Robert 1953. La question des signes zéro. Cahiers Ferdinand de Saussure. 11.
- 服部四郎, 山本謙君, 1955. 滿洲語の一人稱複數代名詞, 言語研究 28.
- Jakobson, Roman, 1939. Signe zéro, Mélanges de linguistique offerts à Charles Bally. Genève.
- Jespersen, Otto, 1924. Progress in Language. London.
- Lyons, John,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 Poppe, Nicholas, 1955.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Helsinki.
- Ramstedt, G.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 Tekin, Talât, 1968. A Grammar of Orkhon Turkic. Bloomington.